

경제학자를 꿈꾼다고 말하는 고등학생에게 보내는 글

최근 들어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장래 경제학자 되는 것이 꿈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물어오는 고등학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마치 설문조사를 하듯 여러 가지 질문의 목록까지 만들어 보내오기도 합니다. 나야 당연히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린 학생을 만나는 게 기분 좋은 일이지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이 인기가 많다는 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해오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주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조금 난처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 그런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주기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성실히 대답해 주는 데 꽤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시간을 쓰는 걸 마다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그런 질문을 해오는 학생들 중 내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선뜻 대화의 장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미안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 나에게 질문을 해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 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느냐구요?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현재 하는 일의 기쁨이나 보람은 무엇이나, 그리고 경제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등 판에 박힌 질문들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짐작이 과히 틀리지 않았다는 데 동의해 줄 사람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숙제와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문을 해오는 학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해야 할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급하니 경제학자 되는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귀찮아서 이런 말로 때우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당장 해야 할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내 양심을 걸고 해줄 수 있는 충고입니다.

지금은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을지 몰라도 막상 대학에 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모든 학문에 대해 잘 알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경제학에 ‘필이 꽃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분야와 철저하게 비교하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앞으로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나는 행태경제이론을 전공하고 싶다.”는 등 자신이 전공할 분야까지 이미 결정된 듯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선행학습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나이에 적합한 공부의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진도를 앞서 나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맹목적 믿음이 어린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부하는 재미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배워 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법인데요.

고등학생이 장래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선행학습이 빚은 병폐 중 하나라고 보

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나 고등학생에게 장래 무엇이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금증의 소산일 테니까요. 고등학생이면 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문의 길을 걷을지의 여부도 결심하기 힘든 나이인데, 꼭 집어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경제학이 무슨 학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 아무런 꿈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으로서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의 고등학교 생활이 다른 학생들의 생활과 특별히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래야 경제학자가 되려는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건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조금하게 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래 경제학자 되는 것이 꿈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오는 조금한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전혀 없으니 현재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 져쳐두고 수학에만 몰두하면 무슨 결과가 빚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나중에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학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잘한다고 훌륭한 경제학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선행학습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학 와서 경제학 공부하는 재미를 앗아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을 엄밀하게 배운다면 모를까 얼렁뚱땅 배워두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잘못 배워 놓으면 나중에 시정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경제학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느니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학에 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앞으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학 관련 책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폭넓은 독서를 통해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고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취미로 경제학 관련 책들을 읽는 것은 무방하지만, 경제학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런 책만 읽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부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혹은 남에게 과시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이든 다른 학문이든 학자로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공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자가 되려는 꿈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공부를 즐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되려 한다는 답을 얻을 수 없다면 경제학자가 되려는 꿈을 접어야 합니다.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신이 과연 경제학이란 학문에 적성을 갖고 있는지도 미리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경제학을 잘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 그 자체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추상적 사고에 능숙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경제학 개론서를 통해서 본 경제학과 나중에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경제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추상적 사고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어려움이 무척 큼니다. 내 제자들 중에는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학부에 들어와 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등학생으로서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식으로 장래에 대해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진로를 모두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설사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른 학생과 달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학과 경제학을 특히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경제학 관련 서적을 특히 많이 읽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폭넓게 공부하고 폭넓게 책을 읽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사실 경제학자가 되는 특별한 길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학자가 되는 겁니다. 내 친구 혹은 내 제자들 중에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많지만, 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특별히 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